

# LGD, 애플 스마트시계에 패널 공급

7월 생산 시작해 10월 발매 유력 ... 2.5인치 직사각형 OLED 독점으로

애플(Apple)은 7월부터 스마트시계 생산을 시작한다.

로이터(Reuters) 통신은 6월19일(현지시간) 타이완 Quanta Computer가 애플의 스마트시계 생산을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초기 생산 물량에 대해서는 LG디스플레이가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을 독점으로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7월부터 생산하는 애플의 스마트시계에는 아직 이름이 붙지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아이워치(i-Watch)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애플이 라이벌기업인 삼성전자에 맞서 여전히 혁신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려고 스마트시계 등을 출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애플 스마트시계의 디스플레이는 대각선 길이가 2.5인치로 삼성전자의 스마트시계 기어핏(Gear Fit)과 유사한 직사각형 형태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계 앞면은 손목 밴드로부터 약간 튀어나와 아치 모양을 이루고 터치 인터페이스와 무선 충전 기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애플은 10월경 스마트시계를 발매할 예정이며 1년 이내에 5000만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Quanta Computer가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완제품의 70% 이상에 대한 최종 조립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센서 전문기업 Heptagon도 부품 공급기업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스마트시계 출시에 대해 관련기업들은 아무 논평을 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6/20>